

강진군 '하멜촌 맥주' 내걸고 '하맥축제'

31일~다음 달 2일 군동면서 행사장에 수제맥주 1만병 공급 피크닉 존·30동 텐트촌도 운영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강진군 군동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1회 강진 하맥축제'에서는 강진에만 있는 '하멜촌 맥주'를 1만병을 공급한다.

블금불파에서 판매된 7900병으로, 1차로 만들어진 맥주는 매진된 상태다. 강진군은 하맥축제 행사장에 맥주 1만병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병영면에 하멜촌 맥주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축제장에서 맛보는 하멜촌 맥주는 한 잔에 단돈 2500원이다. '맥주 존'을 찾으면 1만원에 원하는 만큼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행사장은 100개 식탁을 갖추고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피크닉 존'과 30동 규모 텐트촌도 운영한다.

강진군은 방문객의 안전 귀가를 위해 축제장과 군청, 강진터미널을 거치는 순환 버스와 강진-광주, 강진-목포 구간 버스로 운행한다.

신분증을 가져와 성인을 인증해야 맥주를 살 수 있으며, 학생 등 미성년자의 축제장 입장과 공연 관람은 자율이다.

이번 축제의 불거리는 사흘 동안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댄스·힙합·DJ EDM 파티 공연이다. 주요 초대가수로 김종국, 박명수, 리듬 파워, 조명섭, 스페이스 A, DJ AK, DJ 지수, DJ 허조고 등이 출연한다.

강진군은 평소 축제의 3배에 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안전대책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하맥축제는 젊은이들의 축제이자 치맥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즐길거리"라면서 "축제장을 찾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나주시, 혼자 사는 청년 아침 챙겨준다

28~30일 지원 대상자 모집



나주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아침 끼니를 챙겨주기 위해 간편식(밀키트·시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 1인 가구 즐거운 아침식사' 3기 사업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영양을 고루 갖춘 아침 식사 식재료를 매주 2회씩 총 6주간 받는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 대화방을 통해 조리법과 식단 구성 방법 등을 소개받아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한다.

나주에 사는 20세부터 49세까지 청년 1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청·보건소 누리집에 오른 큐알(QR)코드를 찍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지난달 청년 60가구에 총 24회에 걸쳐 간편식 식재료를 제공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층, 특히 청년 1인 가구 아침 결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며 "비만 원인 중 하나인 아침 결식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불암마을에 '남도노동요' 전수관 신축

연습실·다목적실 등 갖춰...무형문화재 가치 보존·계승 탄력



함평군은 '남도노동요' 전수관을 엮다면 불암마을에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남도노동요는 1977년 10월 20일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으며, 노동요 전승자 천학실 씨가 작곡한 뒤 엮다면 불암마을 주민들이 보존회를 결성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함평군은 남도노동요 전승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수관 신축 공사와 환경 정비 사업을 했다.

함평군은 예산 4억5000만원을 들여 대지 330㎡, 연면적 99㎡, 지상 1층에 연습실 1개, 다목적실 1개로 전수관을 신축했다.

남도노동요 보존회 관계자는 "전수관을 신축한 만큼 무형문화재의 전통적 가치와 명맥을 후손들에게 잘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남도노동요 전수관이 우리 문화재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최근 열린 '농업기술센터 역량 강화 보고회'에서 현장 중심 농촌지도부를 당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농촌 현장 기술지도 강화 보고회'

장성군이 최근 올해 농업 정책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농업인회관에서 '공무원 현장 기술지도 역량 강화 보고회'를 열었다.

센터는 올해 들어 양파를 균등 생산하기 위한 계획 육묘(묘목 기르기)와 신 소득작물 발굴·육성

에 힘써왔다. 또 청년 농업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신규 시책을 발굴해왔다. 보고회 참가자들은 농업 정책사업 추진 결과와 선진지 답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장성군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100원 택시' 카드 결제 방식 도입

내년 상반기 중...65세 이상 등 대상

화순군이 내년 상반기에 '100원 택시' 이용객을 위해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전용 카드 결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카드 도안을 확정했다. <사진>

화순군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1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맘 편한 택시'를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

정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가 매달 할인권을 직접 모아 화순군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화순군은 100원 택시 이용자 규모를 12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한 달 평균 4만원가량 쓸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다.

화순지역에는 법인택시 66대와 개인택시 70대 등 모두 136대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를 기반으로 '100원 택시'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카드 결제를 전면 시행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청렴·부패 방지 종합계획 공유회

담양군이 24일 읍면지역 청렴명예감사관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부패 방지 종합계획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는 지난해 청렴도 수준과 올해 청렴 시책 추진전략 및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 감시자인 청렴명예감사관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합감사에서 접수된 청렴명예감사관의

건의와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공식사회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방안 등을 진솔하게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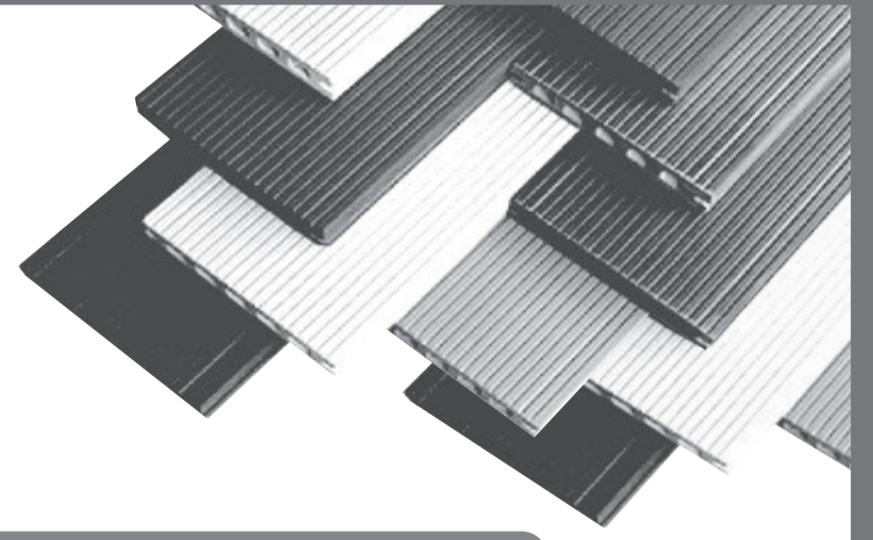
이어 청렴명예감사관과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손에 들고 청렴 가치를 향한 의지 표명과 부패 방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